

Congratulations

우린 한가족!

이미 한가족이나 다름없는 우리!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소식터로서, 사보 '한세 in'이 '한세인'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짙어가는 가을 속, 소중한 순간을 보낸 동료에게 한 조각 축하의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화답의 미소로 너도나도 행복해질 테니까요.

우리라는
선물을 준 그대
박종호 대리
(315팀)



예쁘고 좋은
것만 보고 자라렴
진수정 주임
(5물류팀)



태어나줘서
고마워
배수진 주임
(215팀)

솜사탕같이
부드러운 너의 볼
노재민 대리
(VTN 나이기영업2팀)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길
여충길 대리
(1B11팀)



장난기 어린
표정의 재롱둥이
배순기 주임
(1B63팀)



결혼을 축하합니다

여충길 대리 (1B11팀)	07월 11일
김선영 대리 (1C51팀)	07월 25일
박종호 대리 (315팀)	09월 06일
정광현 대리 (6A12팀)	09월 19일

발행인 : 이윤백 | 기획 : 한세 경영기획팀 | 통권 006호
발행 : 2015년 10월 14일 | 디자인 : (주)대통기획 |
미국인 3명 중 1명은 한세움을 입습니다

탄생을 축하합니다

노재민 대리 (VTN 나이기영업2팀)	07월 07일
배순기 주임 (1B63팀)	07월 10일
배수진 주임 (215팀)	07월 18일
진수정 주임 (5물류팀)	08월 05일
조혜나 대리 (디자인1팀)	08월 12일

진용민 대리&이세민 주임 08월 15일
(535팀&535팀)

이다빈 주임 (디자인1팀)	08월 19일
이현우 대리 (TN 외주관리)	09월 02일
이경진 주임 (315팀)	09월 06일
양아란 대리 (TD 2팀)	09월 07일
유재송 주임 (디자인2팀)	09월 27일



HANSAE:IN

HANSAE QUARTERLY MAGAZINE Vol.006 AUTUMN



전자책, 그 낯선 매력에 빠지다

늘 바쁜 현대인들은 사무실과 집을 오가다 보면 도서관에 들 시간 없는데요.
여기 지식에 목마른 한세인들을 위한 한세 전자도서관이 있습니다. 종이책보다 낯선 단말기에
많은 양을 탑재할 수 있는 전자책의 생소하면서도 실용적인 매력. 2012년 9월 오픈한
한세 전자도서관에서는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책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1 한세 전자도서관 이용하기

이용권한: 한세실업 및 관계회사(한세에스24홀딩스, 에스24, 아이스타일24) 임직원들은 전자
도서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PC, 태블릿 PC, 스마트폰 어플, 크레마 등의 기기로 전자책을 보실 수 있고, 전자책
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부여된 계정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기본 설정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사번 소문자로 동일하며, 로그인 후 비밀번호는 개인이 변경 가능합니다. 대여는 3권까지 가능
하고 대여 기간은 5일이며, 1회에 한하여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읽고 싶은 책을 타인이 대출
중인 경우에는 최대 3권까지 대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반납방법: 대출 기간 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반납되며, 그 이전에 반납하려면 "반납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유시민의 논술 특강」 「사물의 심리학」 등 총 145권이 업데이트되었 습니다. 질여가
는 가을, 책 한 권의 여유로 마음을 풍족하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2 대여 방법

원하는 책 선택 후 ▶ "대출하기" 버튼 클릭 ▶ 내 서재로 이동 ▶ "책 읽기" 버튼 클릭
(PC로 전자책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책 뷰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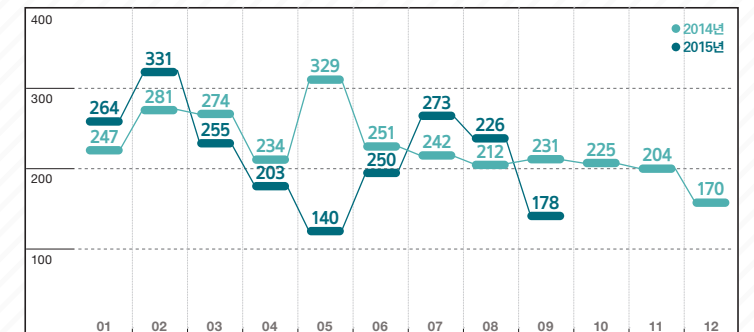
3 오픈 일부터 현재까지의 총 사용자 수, 대여 권수, 비치한 책의 권수



2015년 9월 출시된 '크레마 카르타'

4 월별 대여 권수 (관계회사 포함하여 조회)

총대여 권수 (2014년 1월 ~ 2015년 9월) : 5,020권
2014년 : 2,900권 / 2015년 : 2,120권



5 가장 많이 대여된 책 (베스트 대여 도서)



6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직원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선선해서 책 읽기 좋은 요즘, 전자도서관을 이용해
책 읽으시는 건 어떨까요?

_ 한세실업 총무팀 곽혜림 주임

乘 勝 長 驅

승승장구 영업 뒤에 우리가 있다!

경영지원본부 물류팀

영업 현장의 최일선에서 누군가 열심히 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들이 있다. 매출이나 실적 등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수치적 성과와는 다소 거리는 있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이들의 업무 처리가 없다면 영업 이익도 담보할 수 없다. 영업팀인 듯 지원팀인 듯 카멜레온처럼 변화무쌍한 물류팀의 이야기다. 글·한울 / 사진·안지섭

영업의 든든한 지원자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잘 뛰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지원해주는 많은 사람의 노고가 있어야 한다. 경기에 참가하여 점수를 내는 사람은 운동선수들이지만, 선수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탁월한 실력이 먼저 뒷받침돼야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다. 경영지원본부 수출1부문 물류팀, 수출 5부문 물류팀, 수출 6-7부문 물류팀은 선수들, 즉 영업팀이 잘 땀 수 있도록 만드는 지원 팀이다. “영업팀에서 구매한 원단과 부자재가 해외 공장으로 갈 수 있도록 선적 서류를 작성하고 통관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단과 부자재들의 대금 납입을 위해 구매 내역을 영업팀에서 받아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외환팀이나 회계팀으로 보내는 구매정산 업무도 하고 있고요. 해외공장에서 완성된 의류가 미국으로 송출될 때 수출 서류

확인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수출 6-7부문 홍영수 팀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사실 물류팀의 업무를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영업팀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통관 및 비용 정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실제 비용 집행을 위한 사전 업무를 진행하므로 영업팀과 외환팀, 회계팀 등의 재무부 사이에서 오차 역할을 하는 셈이다. 물류팀은 우스갯소리로 ‘이슈가 곧 일상’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글로벌 환경을 컨트롤하다보니 일이 예정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공장에 송출할 원단과 부자재가 실린 컨테이너가 물에 빠지거나 도난당하는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변화무쌍한 업무를 소화하려면 개개인의 전문성과 시스템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한세를 위한 소통과 화합의 팀이 될 터

“영업팀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더 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물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발이 마무리된 것은 이미 이용 중이고요, 올해 말에 개발이 완료됩니다. 물류 프로세스 개선은 서류로만 진행했던 업무를 시스템화하여 통관의뢰서나 패킹 등 영업 업무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수출 1부문 신혜진 대리는 업무의 정확과 기준과 규정 준수도 물류팀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간혹 “공무원처럼 일한다”는 실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지만, 기준과 규정이 없으면 어딘가에서 손실이 생기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난해 약 3개월에 걸쳐 업무 매뉴얼 복을 만든 이유도 영업 환경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서러한 명의 팀원이 모여 있는 물류팀은 팀워크에서도 최고를 자랑한다. 일 년에 각각 두 번의 산악 등반과 야유회를 통해 허심탄회한 시간을 가지며 끈끈한 유대감을 쌓는다. 뱃물이 피는 봄이 오면 도시락을 들고 야외에서 점심을 먹는 등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한다는 이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물류팀의 팀 파워는 더

욱 단단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단결은 물류팀 내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저희 물류팀은 영업팀과 워크숍을 같이 갈 때도 있고 재정부와 함께할 때도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웃음). 물류팀의 모토는 쌍방향 소통에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물류팀이 축이 되어 영업 업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근래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꼽는다면 미안마 첫 출고를 이룬 것이다. 미안마에 대한 미국의 수출입 규제가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팀원들 모두 고생을 했지만 그만큼 앞으로의 기대가 크다고. 물류팀원 모두의 바람이 있다면 물류팀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 “간혹 업무를 하다 보면 긴가민가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땐 물류팀에 꼭 물어봐 주세요! 공지사향이 있을 때마다 메일 발송을 하고 있는데 메일도 꼭 확인해 주세요!” 물류팀은 영업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겉으로는 드러나 보이지 않을지라도 물류팀을 최고의 팀으로, 한세의 영업 조직을 최강의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이들의 굳센 열정이 있기에 글로벌 한세의 내일은 훨씬 밝다.



충북 괴산 산막이 옛길로 떠나다

2015 하반기 제2차 심신단련/소통 자율 TREKKING

작년 이맘때 '제1차 심신단련/소통 자율 TREKKING' 행사로 북악산 둘레길을 다녀왔습니다. 반기별로 실시하려던 상기 행사가 올해 상반기에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 취소되었으나, 하반기에는 서울 인근을 떠나 저 멀리 충북 괴산 산막이 옛길로 '2015 하반기 제2차 심신단련/소통 자율 TREKKING'을 다녀왔습니다.

9월 12일(토)에 팀장 이상 직원들의 심신단련/유대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한 하반기 트레킹을 충북 괴산 산막이 옛길로 떠났습니다. 산막이 옛길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사오랑 마을에서 산골 마을인 산막이 마을까지 연결됐던 총 8KM(2시간 소요)의 옛길에 덧그림을 그리듯 그대로 복원된 산책로이며, 친환경 공법으로 조성되어 살아있는 자연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62명의 팀장 이상 직원들은 수풀 냄새, 싱그러운 산바람과 산들거리며 불어오는 강바람이 만나는 그 길을 함께 걸으며 맞춰지는 발걸음에 마음까지 버무려 보았습니다. 최근 새롭게 조인한 팀장 및 부서장들을 소개하고, 평소 업무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주위를 돌아보며 추후 업무 진행에 순풍을 불러일으킬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무더웠던 올여름의 끝자락, 모처럼 사무실을 떠나 동료들과 그간 못 나눈 얘기들도 서로 나누면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또한, 무작위 조 편성으로 평소 같이하지 못했던 동료들과 새롭게 친해질 기회를 마련했기에 더욱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조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멋진 구도로 친근감 있게 조별 단체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조별 PHOTO 콘테스트는 서로 간의 친밀도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별 PHOTO 콘테스트에서 1등을 수상한 4조(조장:박성범 과장)는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을 받았으며, 2등인 1조(조장:박관수 과장)는 슈퍼커피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무럭무럭, 쑥쑥! 하노이 오피스의 눈부신 성장

한세in에서는 매회 한 개의 법인을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법인은 베트남의 수도에 위치한 하노이 오피스입니다. 2009년 9월 설립된 하노이 오피스는 한국인 6명, 현지인 60명의 직원이 있는 베트남의 특성에 맞춰 최 현지화한 해외법인입니다.

01 현지화로 성공을 거두다

하노이 오피스는 한국인 매니저 외에 베트남인 팀 매니저가 책임지고 일을 수행하며 크게 보면 생산관리팀, 품질관리팀, 수출입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 66명 중 약 절반은 현지인 협력공장에 상주하여 품질을 관리하고, 수출입 담당 직원 외에 대부분의 직원이 협력공장에서 사무실로 바로 이동하는 현장 지향적인 사무실입니다. 현재 13개 공장, 약 150개 라인 전부가 베트남 현지인 공장으로, 한국인 직원보다 베트남 직원들의 역할이 타 CO 한세 법인과는 차별화된 지사입니다. 2015년도 현재 Knit/Woven 전체 매출이 1억 8천만 달러, 한세 전체 매출의 약 13%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02 베트남의 자부심, 하노이의 자량

하노이 오피스 직원들은 베트남에 대한 자부심이 강할 뿐 아니라, 책임감 역시 남다르게 높습니다. QA TEAM외 모든 인원이 4년제를 졸업해야 입사가 가능하고, 입사 지원 시 영어인터뷰를 하며, 업무 메일 역시 영어로 진행합니다. 이러한 직원의 모습에 걸맞게 하노이 오피스는 베트남에서, 더 나아가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인 경남 렌드마크 빌딩(72층) 36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03 배움 더하고, 마음 나누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본사 직원에게는 베트남어 교육을 하고 있으며, 생산관리팀과 수출입관리팀에게는 한국어 교육, QA Team에게는 영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수사원에게는 매년 2회 호치민 본 공장 견학의 기회가 제공되며, 전 직원이 매년 1회 1박 2일로 Workshop을 갑니다. 201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명승지 하롱베이로 Workshop을 다녀왔고, 올 2015년 8월에는 '누가 내 치즈를 훔쳤을 까'라는 주제로 Workshop을 진행했습니다.

04 성장의 열쇠, 노력이 답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실한 태도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하노이 오피스는 한세 본 공장 혹은 타 CO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item을 강점으로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고, 향후 5년, 10년 뒤에도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하노이 오피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원'이 달라졌어요

한세의 가치를 품은 공간이 다시금 빛어졌습니다.
한세in의 눈높이에 맞춰 새 옷을 입고 단장한 안원빌딩의 공사 과정을 들어볼까요?

2015년 5월부터 업체 미팅을 시작하여, 1차로 12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R&D, 영업팀 담당자, 지원본부 담당자가 내부 심사를 하였고, 경험 많은 업체 다섯 군데를 선정하였습니다. 2차는 PT를 통한 Competiton 방식으로, 새 사무실을 사용할 영업팀과 R&D, 지원본부 30여 명이 참석하여 최종 2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2/3/4/5층 1개 업체, 7/8/9층 1개 업체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7개 층의 큰 공사였으며 2, 4, 5층은 전 층 신규 공사로 3, 7, 8, 9층은 부분 리모델링 공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실 공사 면적은 총 6,793㎡(2,055평)입니다. 현재 2층은 재정부, 3층은 QA/DBM/C&T, 4층은 6본부, 5층은 7본부, 8층 R&D가 사용하고 있으며 7층은 교육장/소룸으로, 9층은 R&D샘플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테리어 설계 시 가장 중점적으로



안원 5층 복도



안원 7층 회의실 겸 소룸



안원 4층 회의실 앞 라운지



안원 5층 로비 라운지



안원 4층 로비 라운지



안원 5층 회의실 앞 라운지



안원 4층 복도

Anwon
building is
clad in new
clothes

생각한 것은 사무공간과 기타공간의 분리였습니다. 외부인 출입이나 창고 등의 이용 동선을 사무실과 분리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영업팀에서 사용하는 가구도 교체하였는데, 가구 선정 전에 설문을 통해 샘플/파일 등의 수납 공간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부/하부장을 추가하는 등 유명 사무가구업체에 한세실업을 위한 가구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요 조사를 하여 옷걸이 형식이 필요한 팀에는 파일장 대신 옷장 형태로 제작을 해주며 사용자의 편리를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였고, 측면 오픈 파티션으로 팀내에서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우빌딩도 층마다 다른 로비 디자인으로 개성을 달리했듯이, 안원빌딩도 회의실로 연결되는 복도와 라운지를 보시면 각 층의 콘셉트를 아실 수 있습니다. 4층은 블랙과 자작나무, 5층은 화이트와 자작나무로 콘셉트를 잡고, 4층은 아늑하고 럭셔리한 느낌, 5층은 밝고 시원한 느낌을 연출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이 가장 잘 된 부분은 한세의 정체성을 나타낸 각 층의 메인 벽입니다. 4층은 자작나무에 옷 모양으로 세공하여 세계지도를 표현하였고, 5층 전체 벽에 붕사(색칠)를 사용하여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면서 색채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번 안원 빌딩 인테리어 공사 기간은 약 40일(8월 3일 착공 ~ 9월 11일 완공)이 소요되었습니다. 짧은 기간 내 여러이점을 비롯한 여러 공사가 한 번에 이루어 지다 보니, 공사 일정을 맞추는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한 빌딩에서 한세의 이사/공사/가구입고와 동시에 이뤄지고, 또 같은 기간에 다른 층에서는 타회사의 이사/공사가 많았어서 엘리베이터 사용 문제로 업체끼리 싸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 정말 골치 좀 아팠습니다.^^ 보기에도 좋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진행된 인테리어 공사이내만큼 오랫동안 본연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책상, 새로운 인테리어... 깨끗하게 사용해 주세요. 휴일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_ 한세실업 총무팀 천경희 대리

한세in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업무 집중에 도움을 주는 한세에스24어린이집 그곳을 운영하는 원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꿈꾸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한세에스24 어린이집



Q '한세에스24어린이집'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사 및 계열사 직원의 자녀로 구성된 27명의 아이와 조리사, 원장을 포함한 10명의 교직원인 한세에스24어린이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AM 7시 30분 ~ PM 7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추후 시간 연장에 대한 보육 수요가 있을 때 9시까지 연장 보육을 하며 저녁이 제공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 3회 간식과 점심이 제공되며, 식재료는 평균 98% 이상 푸드머스(식재료 전문 공급업체)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친환경, 유기농, 한우 등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어린이집 내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시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유희실을 제일 좋아합니다. 특히 수족관 버스는 나이를 막론하고 아이들이 가장 즐기는 놀이공간입니다. 수족관 버스에 앉아 수조 안의 물고기를 보기도 하고, 계단을 올라 투명한 난간 사이로 엄마 얼굴을 확인하며 미끄럼틀을 타기도 하면서 어린이집을 즐겁고 신기한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Q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세에스24어린이집에서는 특성화 프로그램인 뷰티풀그린 프로그램과 글로벌챌린지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0세의 아이에게는 '애착(Attachment) 증진을 위한 오감 활동 프로그램', 만1, 2세의 유아에게는 '전인발달을 위한 놀이 활동(미술퍼포먼스, 요리활동) 프로그램'으로 연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응이 완료된 오리아드반(만2세)의 경우는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 배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집에 와서 '손 씻는 방법', '양치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배운 대로 생활하는 모습이 대견하고 기쁘다는 반응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 또는 각오를 말씀해주세요

아이들은 백 가지의 생각과 백 가지의 언어와 백 가지의 사랑하는 법 그리고 꿈꿀 수 있는 백 가지의 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세에스24어린이집에는 백 가지의 꿈을 꾸는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아이들의 생각을 제한하지 않고 작은 꿈들을 응원하는 교직원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행복한 곳, 선생님들이 성장해가는 곳, 학부모님이 신뢰하는 곳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담당자 comment - 총무팀 황찬경 과장

9월 4일 개원한 '한세에스24어린이집'은 위탁운영업체, 시공사, 교육프로그램까지 모두 아이를 키웠거나 앞으로 어린이집에 보낼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한세에스24어린이집만의 특별하고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 제고를 위하여 여러 번의 미팅과 PT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개방은 모이곶으로, 체육복은 권리수로, 책은 에스24에서, 인테리어 모티브와 소품은 한세드림에서 도움을 주면서 한세에스24어린이집만의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각 사 직원들이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실질적 복리후생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세에스24어린이집 홈페이지 <http://hansae.hansolhope.or.kr/info/>



한세드림, 제5회 걸리수 축구대잔치 리틀K리그 개최

한세드림은 제5회 걸리수 축구대잔치 리틀K리그 '뛰어라 우리 아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유치원 대상(6~7세) 전국 최대 규모의 축구 대회로 전국에서 총 64개 팀이 참가했다. 경기는 전후반 각각 10분씩 진행됐으며 팀별로 3경기를 치렀다. 경기 후에는 별도 우승 팀 수상 없이 참가선수 전원에게 기념메달과 걸리수 유니폼 티셔츠, 한세드림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대한축구협회(KFA)에서 공인 인증한 축구공을 증정했다.



한세에스24홀딩스, 계열사 통합 사내 첫 어린이집 개원

한세에스24홀딩스가 여의도 본사 안원빌딩 2층에 49명 규모로 사내 첫 통합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각종 놀이기구를 비치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임직원 학부모들이 직접 선택한 위탁업체 한솔교육희망재단은 한세에스24어린이집만을 위해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에코그린 생태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알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실력 있고 검증된 보육교사를 전반에 배치했다.



'플레이키즈 프로' 가격은 낮추고 혜택도 주고

멀티숍 플레이키즈 프로는 해외 직구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키즈라인을 해외 직구보다 가격을 낮추고 혜택은 키워 판매한다. 해외 직구와 달리 매장에서 아이가 직접 옷을 입어본 후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 시행착오가 없고, 현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다림이 필요 없다. 교환이 가능하고 제품에 이상이 있을 때는 A/S 역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점도 멀티숍 플레이키즈 프로가 가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한세실업, 2015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지난 23일 한세실업이 2015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수출부, 경영일반 부문이며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형별 안내 및 합격 발표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한다. 한세실업 공개채용의 특징은 50명 이상 인턴사원을 채용한 후 6개월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입사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정규직 전환 시 연봉은 군필 기준 4,350만 원이다.



한세실업, 나승연 전 대변인 초청 '글로벌 소통' 강연회 진행

한세실업이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본사 임직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나승연 대변인 초청, 평창 2018에서 배운 글로벌 소통법'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자인 나승연 전 대변인은 이날 특강에서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비결로 '배려'와 '경청'이라는 해답을 제시했다. 대변인으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좋은 소통에 앞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다른 사람 말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청중 앞에 떨지 않고 전달하기 위해 연습을 거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세에스24문화재단 제1회 '베트남 미술전' 주최

한세에스24문화재단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제1회 '베트남 미술전(베트남의 아우라, Aura of Vietnam)'을 개최했다. 베트남 예술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한국에 알리고 더 나아가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협력 관계가 문화 예술적인 교류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베트남의 풍경과 정치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미술전은 베트남 전통미술기법 라커웨어(LACQUER WARE: 조개 등을 이용한 칠기)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작품 41점을 전시했다.